

주일가정예배

[성령강림/농어촌주일]

2022년 6월 5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18.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19.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18-21)

자비하신 하나님, 숨 쉬는 모든 생명에게 살아갈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주님만이 참 도움임을 고백하는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강림주일에 예배하는 진리의 영을 보내 주시사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임 중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생명으로 치유해 주시며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184장** **다같이**

1.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보여 주소서
2.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웁니다
3.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4.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후렴)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로마서 1장 26-27절 인도자

26.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27.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으니라

설 교 『동성간의 결혼도 가능한가?』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찬 송 195장 다같이

1.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 하게 하소서
 2.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3.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4.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5.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 아멘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광 고 】

1. 100일 신약 성경 통독 <백.신.통>을 통하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 앞에 바로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새로운 정부가 기독교적 가치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선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교회와 협력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3. 헌금안내
 - ※ 중앙교회 공식계좌로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 ※ 중앙교회 공식계좌: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동성 간의 결혼도 가능한가

로마서 1:26-27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10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이며, 성소수자 청년 50%가 우울 증상을 겪고, 38%는 최근 1년간 정신과를 방문한 경험이 있고, 41%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했다. 존 스토틀은 그의 책 『동성애 논쟁』에서, 우리는 '호모포비아'(동성애 공포증)와 '호모필리아'(동성애 애호) 외에 제3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동성애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생활양식을 버려야 하며, 이성애자 그리스도인들은 호모포비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의 회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알려줄 것은 성경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타락으로 영광과 비극을 안고 있다. 인간은 성적인 존재다. 천사와 같이 무성적 존재가 아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우리는 죄인이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 성적인 죄도 죄 중의 하나다. 창조주께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셨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동성애는 범법 행위는 아니지만 윤리적 일 수 없다. ▶창세기 19장에는 소돔의 멸망이 나오는데 남색(男色) 즉 동성애 때문이었다. 동성애가 소돔 성의 유일한 죄는 아니지만, 주요한 죄인 것은 분명하다. 레위기의 성결법은 동성애 행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레18:22). 바울은 로마서에서 타락한 인간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고 있다. 특히 순리를 역리로 바꾸어 쓴다. 순리란 하나님이 세우신 사물의 자연적인 질서요, 역리는 창조 질서의 분명한 왜곡이다. 역리인 동성애는 하나님 나라와 양립할 수 없고, 율법이나 복음과도 배치된다. 동성애 행위에 대한 성경의 부정적인 금기는 인간의 성과 결혼에 대한 창세기 1, 2장의 가르침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들을 돕는 배필로 삼아 주셨고,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고 상보적으로 창조하셨다. 이성 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다. 성경의 결혼은 남자와 여자, 일부일처제다. 이성간 정절은 하나님의 의도다. 동성애는 성과 결혼에 대한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동성애는 이처럼 반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반윤리적이고 반과학적이기도 하다. ▶1989년 5월 덴마크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동성애 결혼이 평생 지속되는 결혼이 되리라는 생각은 허구였음이 곧 드러났다. 남성 동성애 관계는 정절보다는 문란함이 특징을 보였다. 미국 정신의학 협회지는 “모든 20세 게이 남성의 30퍼센트가 30세에 이를 때쯤이면 HIV에 감염되거나 에이즈로 사망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물론 동성애자 차별이나 혐오는 시정되어야 한다. ‘행위’와 ‘행위자’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권리’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용납하시지,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교회는 동성애자를 대할 때 일반적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 사실 동성애는 아픔이 있을 수 있다. 동성애 성향의 핵심에는 깊은 외로움, 사랑에 대한 갈망, 정체성 추구, 완전함에 대한 갈망 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치료해야 할 질병이다. ▶현재 정의당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어떤 면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악법이다. 대중은 법안의 이름만 알면 찬성이지만, 내용을 알면 반대한다. 설문조사 결과, 구체적 사례를 제공하고 질문하면 이 법안에 반대가 64%, 찬성이 23%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짐은 우리와 후손들이 지게 될 것이다. 사실 그 길은 미끄러운 경사길이다.